

복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

희생영령·유족 아픔 달래고자 유족연합회 등 사업논의 마쳐 추모비 설치·위령제 봉행 추진 “75주년 맞아...역울함 풀리길”

광주 복구가 한국전쟁 개전 75년을 맞아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복구에 따르면 복구 지역에서 한국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올해 최초 시행한다.

앞서 복구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광주 유족연합회를 포함한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모비 설치’와 ‘위령제 봉행’ 등 2개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어 지난 14일 정달성 복구의원이 발의한 ‘광주 복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가 광주자치구 최초로 제정됐다. 복구는 이를 근거로 오는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

산을 반영하고, 상반기 중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월 중 동림동 불공고개, 양산동 장고봉고개, 문흥동 도동고개 등 집단 희생이 발생한 3개소에 추모비를 설치하고, 7월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가 개최될 전망이다.

복구는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4개소의 집단 희생지에 대한 위령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인 복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역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위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광주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2300여 명의 재소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즉결 처분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다문화·이민자 안정적 정착 돕는다 남구, 부모학교·한국어 교육 등

광주 남구가 다문화 가정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가족센터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다문화 부모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구 가족센터는 3월부터 온·오프라인 교육, 검정고시 준비, 가정학습 지도 등을 포함한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부모로, 면접을 통해 6개 가정을 선정한다. 선정된 부모들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학습하며, 이후 9월부터는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도 11월까지 진행된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지원과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다양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한국어 첫걸음반’, ‘토픽(TOPIK) 중·고급반’, ‘국적 취득반’, ‘발음 교정반’, ‘한국어 쓰기반’, ‘직장인 한국어반’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부분은 센터에서 진행되며, 토픽 중·고급반은 온라인(ZOOM) 화상 교육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통합 과정은 2단계부터 5단계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이 이뤄진다.

윤준명 기자



고향사랑기부 접근성 강화 광산구, 민간 플랫폼 운영

광주 광산구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 ‘wegive(wegive)’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wegive’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창구인 ‘고향사랑e음’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 활용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플랫폼 ‘wegive’는 기부와 답례품을 동시에 선택하는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참여가 쉽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wegive’는 생활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 마케팅으로 풍성한 기부 참여 혜택도 제공한다.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 적응 프로젝트, ‘함께해요 천원한끼’ 운영 두 개 사업으로 지정 기부 모금을 개시한 데 이어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 광산구는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지난 6일 답례품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및 민간 플랫폼 이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정 기부와 민간 플랫폼 활용으로 광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잘 쓰이도록 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 동구가 최근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겨울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시인 문병란의 집’서 어린이 시인학교 운영

진현정·문봄 시인 강사로 참여

광주 동구가 지역 대표 인문거점시설인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운영하는 겨울방학 어린이 프로그램 ‘광주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은 어린이 시인학교는 여름·겨울방학마다 어린이들의 동심을 시(詩)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독창성을 발굴하는 등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완성된 작품은 시집으로 발간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주제는 ‘출

니? 이럴 땐 시를 쓰는 거야’로 지난 11~14일 총 4회 진행됐으며 각 회차마다 1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다. 강사는 진현정·문봄 시인이 나서 노벨문학상 작가이자 지역 선배인 ‘한강’을 본받아 장차 훌륭한 시인과 작가로 되돌아오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도했다.

또한 시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시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놀이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학생들은 겨울 추위를 시를 쓰며 극복하고자 하는 따뜻함이 묻어 있어 즐겁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각 회차마다 달라지는 주제를 통해 상상력과 내면의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한강 작가도 처음부터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시로 시작해 시의 감성과 상상력이 소설의 밑바탕이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의 아이들이 동심이 시를 통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방학을 맞아 추위를 시를 쓰며 녹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산형 일자리’ 활동가 모집 광산구, 생활민원 해결 등

광주 광산구는 16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생활민원 해결 △마을 일손 도움 △공공시설 운영지원 △공공사업 인력 지원으로 구성됐다.

광산형 생활일자리 활동은 생활민원 해결, 공공사업 인력 지원 등 총 37개 사업에 참여하며 광산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월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할 150명을 모집한다. 참여 수당 일부는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24일까지 광산구청 각 일자리 담당 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민간 플랫폼(당근) 광산일자리 활동가도 모집한다.

민간 플랫폼(당근) 광산일자리는 자격·나이·경력을 불문하고 총 46개소의 공공 시설에서 선착순 450여명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민간 플랫폼(당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59시간까지 활동한다.

공공 일자리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이나 광산구 일자리 통합플랫폼(광산 일자리 여기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철 기자

서구, 4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

성과금 4770만원 확보 장애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가 4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서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과금 477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장

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돼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관내 16개 주간보호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해 왔다.

서구는 앞으로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AI·디지털분야 프로그램(디지털 강사 양성 파견사업 등) 5개 △찾아가는 평생학습 분야 프로그램(재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등) 5개 △지역 특성화분야 프로그램(우리는 에코메이커스 등) 20개 강좌 총

30개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와 시간, 장소에 맞춰 해당 분야의 강사가 찾아가는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를 운영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 모두가 배움에 차별이 없는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서구’를 만들겠다”며 “장애·비장애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진일보

@j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ilbo@jilbo.com